

공동발전 · 교류 활성화 위한 자매결연 협약

전주시-용인특례시, 협약 체결... 수도권 국내 교류도시 확대 · 첨단산업분야 진출 교두보도 마련

전주시와 용인특례시가 양 도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

시는 28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간 공동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용인특례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와 산업, 문화, 관광 등 각 영역에서 상호 관심 분야와 지향점이 유사한 양 도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의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교류 확대를 위한 첫발을 뗐으며,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자매도시가 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전주시의 국내 자매도시는 경북 안동시(1999년)와 수원특례시(2016년)에 이어 3개 도시로 늘어나게 됐다.

양 도시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 도시는 △주민복지 향상 △문화예술 및 체육 교류 △지역간 관광자원 연계 및 홍보 △농특산물 구매·홍보 및 판로지원 △행정정보 및



전주시는 28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간 공동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용인특례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우수정책 공유 △재해 재난시 긴급구조 등 각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고향 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농산물 직거래 △홍보 및 판로지원 △행정정보 및

도시 주요 축제·행사 시 팝업스토어 개설 등을 우선 추진하면서 시민교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상호도시 시민들에게 전주 경기전과 용인자 연휴양립 등 유명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는

의해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2월 수원, 고양, 창원과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수도권의 대표도시로, 지난 9월 기준 약 1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확대 가동

전주시가 청소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불법투기 단속반을 본격 가동기로 했다.

시는 최근 채용된 10명의 상시단속반에 대한 직무교육 및 현장 실무교육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청소 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8명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단속반을 시범 운영해왔으며, 금회에는 2명을 증원한 10명으로 금년 하반기에 2명 추가 채용하여 12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인 1조 5개조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에 원룸촌과 상가집중지역, 공업단지 주변

등 불법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일쓰레기·재활용쓰레기 혼합배출 △차량용 통한 불법 투기행위 등을 단속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시는 상시단속반과 취약지역에 설치된 500여 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시카메라로 확인이 어려운 투기행위나 카메라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지능형 투기행위 등에 대한 물샐 틈 없는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단속반을 시범 운영한 결과 운영 전 454건(40백만 원)보다 증가한 불법투기 1333건을 적발해 총 1억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과 깨끗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식 개선에 힘을 계속"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경찰에 고발

도내 국선 관련 첫 고발 사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민의 집 2호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고 '공직선거법'에 허용되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A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

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겠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에서 사회적 기업 '굿월스토어'에 기증한 중고 물품들.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전주시설공단, 중고 물품 기증

'굿월스토어'에 헌 옷 등 300여점 전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사회적 기업 '굿월스토어'에 헌 옷과 신발 등 중고 물품 300여 점을 기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증된 물품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분류 작업 등을 거쳐 굿월스토어 매장에서 판매된다. 판매 수익은 장애인 자립 등에 쓰인다.

중고 물품은 공단 복지환경부 직원들과 늘푸른마을 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았다. 늘푸른마을 아파트는 미혼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다.

공단은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늘푸른마을 아파트 입주주민들과 함께 매년 중고 물품 기증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계현 복지환경부장은 "환경도 보호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자립을 돕는 중고 물품 기증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올해 농업미생물 4종 143톤 공급

전주농기센터, 농업미생물 활용·만족도 조사 결과 '92% 만족'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올해 현재까지 전주시역 농가 400여 명(누적 5100여 명)에게 농업미생물 4종(광합성균, 바실러스균, 복합균, 클로렐라) 143톤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바실러스균(GH1-13) 특허 균주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새롭게 공급되고 있다.

바실러스균(GH1-13)은 고추와 토마토, 감자 등 다양한 작물에 사용하면 작물 생육증진 및 병역제, 건조 및 냉해 내성을 증강시키는 품질향상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활용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원당동 시설고추 재배농장의 경우 공급받은 미생물 500배액을 매주 1회 관주처리한 결과 시설재배 시 문제가 되는 진딧물 및 잿빛곰팡이병 등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 전주농업기술센터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미

생물 활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92%가 공급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농업미생물 사용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작물생육 촉진 32% △토양 개량 24% △수확량 증가 22% △병해충 감소 12% 순(중복응답 가능)으로 응답해 농업미생물이 영농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농업 미생물 사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정도에 대해서는 △10% 절감 45% △20% 절감 43% △30% 이상 절감 10% 순으로 답해 응답자의 98%가 미생물 사용을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사용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만족도 조사 시 추가 의견으로는 공급시간 확대, 올바른 활용법 교육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는 공급시간을 연장하고, 희석배율, 다른 물질과 혼용가부 등 올바른 활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농업 미생물 공급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